

0. 들어가며

전여대협의 깃발아래 씬없이 사업과 투쟁을 벌여온 3'4월

지난시기는 전여대협으로 일심단결하는 기풍을 세워내고 주한미군 철거투쟁, 일본군 위안부문제 해결투쟁을 결의하며 학내에서 진행된 출범식 및 각 대중사업속에 녹여내고자 하였습니다.

개강과 더불어 교정에 넘쳐나는 새내기들과 방학등으로 결함되지 못했던 일꾼들이 망라되면서 새롭게 여학생회 주위로 학우들을 묶어세워내는 과정이었습니다.

특히나 4월 한총련 대의원대회와 전여대협 총회를 통하여 전여대협의 조직을 중심으로 여학일꾼들이 망라되는 벽찬 시기였으며 특히나 몇 년만에 정식적이며 안정적으로 진행된 전여대협 총회는 일꾼들과 학우들에게 많은 감동을 주었던 시간이었습니다.

■ 전여대협 총회 총화(특화시켜서)

성과적 지점

2000년 6기 전여대협 총노선을 논의하고 의장을 선출하면서 전여대협 총회를 실질적으로 성사하여 정식체계를 세워내어 전여대협의 위상을 높이고 굳건히 만들어가는 자리였다.

여학일꾼들이 전여대협 총회를 통하여 교양되고 단련되어 자주적 여학생운동의 주인주체로 되어가는 자리였다.

기간의 전여대협의 조직적 과제의 해결과 대중투쟁의 의식흐름을 총괄총화하고 이후 투쟁의 결의를 다질 수 있는 자리였다.

많은 대중들의 지지와 엄호 속에서 치루어지는 전여대협 총회를 만들어가려는 노력으로 전여대협 운동의 대중화에 대한 고민을 만들어가는 자리였다

전여대협 총회를 주체한 단위의 여학생운동을 향상·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한계적 지점

연대단위 조직화 및 각계각층의 축사조직화에 만전을 기하기 못한점

전남대 총여학생회의 조직적 결속을 다져내는데 한계가 나섰던점

전체 대표자 조직화에 미흡한지점

(안동대, 협성대, 명지대를 비롯한 대학대표자의 조직화가 되지 못한 점)

지역과 대학의 모범총화와 발골에 좀더 많은 관심과 준비를 철저히 하지 못한점

그러나 여전히 전여대협의 사업과 지침에 따라 전대오가 전일적인 흐름으로 투쟁이 풀어지지는 못한 한계가 있습니다. 전여대협 4,5월 사업계획서가 제출된 후 단위마다 사업이 풀어지는 속도의 차이가 단위마다 많은 차이가 있었으며 중심적으로 풀어가는 투쟁의 편차가 있는 등 전일적인 흐름이 형성되지 못하는 점이 존재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원인을 보면

단위마다의 여전히 조직사상생활이 안착화되지 못하면서 단위사업의 입안과 집행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고 사람들간의 문제가 풀리지않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대중투쟁과제의 전망을 장기적으로 만들지 못하고 투쟁을 진행하려다 보니 단위에서 힘있게 진행되지 못하거나 하나의 사업으로 전략하고 그냥 거기서 머물러 버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상층에서 기층으로의 지도사업이 전일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이악스럽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

니다.

일꾼들의 심장이 아직도 뜨겁게 여성단체들의 아픔에 분노와 감동으로 뛰지 못하고 있습니다.

5,6월은 2천년 사업의 성패를 가름하는 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5'6월 우리의 혁신의 지점을 다그치고 투쟁을 가시적으로 만들어가지 않는다면 방학에 접어들고 9월이 되어서는 후회해도 늦는다는 선견지명을 가지고 이번 5'6월이 마지막이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기간 우리들에게 나섰던 문제점을 하나하나 그쳐 들어가면서 투쟁을 일구어 가도록 합시다.

1. 정세

전반 정세 및 여성 정세

2. 시기규정

(1)반미투쟁을 직접적으로 일구는 시기

- 3,4월 반미 투쟁을 평가해봅시다.(3,4월에 반미투쟁을 가시화할 것을 이야기했었습니다.)
- 여학우들이 반미투쟁에 주체로 나서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논의해봅시다.
- 민족적 분노를 나부터 체현합시다.

(2) 투쟁으로 몰아치는 시기

- 전투 계획서에 근거해 전투적으로 투쟁에 임합시다.
- 조직을 더욱 바짝 정비해야 합니다.
- : 소모임 사업과 과여부 등 기층 새내기 사업을 놓치지 말고 투쟁에 함께 합시다.

(3)전여대협 차원의 미군의 학살 만행 특별조사위원회 건설 준비 및 건설

- 대학별 구체적 활동과 흐름으로 연대단체와 함께 만들어갑시다.

(4)성폭력 학칙 제개정 및 성폭력 추방을 위한 공동대책위 건설 활동

- 중앙과 지역, 대학에서 해야할 일들을 명확히 하고 전일적으로 공통으로 투쟁을 전개합시다.
- 학우 대중의 의식 흐름을 형성하고 연대 투쟁을 벌여내도록 합시다.
- 통신 공간을 만들어서 곧 바로 총화하겠습니다.
- 특위와 연결하여 어떻게 투쟁을 벌일 것인가 고민해봅시다.

(5)활발한 대중사업의 공간에서 사업과 투쟁을 다양하게 풀어내는 시기.

- 큰 덩어리의 사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규모가 어떻든지 간에 정말 여학우 대중이 주인으로 될 수 있는 대중 사업을 펼쳐냅시다.

(6)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준비하고 실지로 펼쳐내는 시기

- 이남 여학우 발야구 대회 : 이 흐름을 남북청년여학도가 함께 할 수 있도록 만들어갑시다.
- 6.10 남북실무회담 여학생조직 만남을 시도해봅시다.
- 대학별 자주교류를 대동제 기간 등을 이용해 학우들에 의해 대중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합시다.
- 3대 현장지지 관철 투쟁을 어떻게 여학단위에서 풀어낼 것인가
농활 및 여성노동자들과 연대 과정에서 해설 작업-여학일꾼부터 사전에 교양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출범식과 각 학교 대동제에서 3자 연대의 부분

-이북 여성 바로 알기 운동 : 자주교류 투쟁을 통해서

(7)노동자·농민들과 실질적인 연대 투쟁을 벌여내는 시기.

- 봄농활, 여름농활을 통한 여성농민과 연대
- 노동자 대투쟁 시기 여성노동자들과 연대

-여성단체들과 전민특위 및 성폭력 공대위 함께 이야기하며 연대

-체육대회 등을 통해서도 좋습니다.

(8)7,8월을 준비하는 시기(7,8월에 해야할 기본적인 것들 맞보기입니다.)

-1학기 평가를 진행합니다.

-조직사업 정비하고

-학습 및 투쟁에 더욱 박차를 가합니다.

-여학우들이 통일투쟁을 왜 해야하며 어떻게 대중적으로 펼쳐낼 것인가 ?

: 통일 토론회-제 사회 여성단체들과(범여성국과 고민 함께)

3. 조직사상영역의 과제

48일전투

전투제기배경3,4월은 조직을 다그치고 투쟁을 만들어가는 시기였다면 5,6월은 기간 결의하고 만들어갔던 투쟁을 한단계 수위높게 진행하여야 하는 시기입니다. 한편으로 5,6월은 처음 힘차게 결의했던 우리일꾼들이 몇 개월 지나가면서 대중사업과 투쟁속에서 지치고 여러 고민들이 하나둘 나서기 시작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당면 투쟁을 더욱 상승시키기 위해서 또한 나서기 시작하는 일꾼들의 고민을 조직적으로 총화하고 풀어가기 위하여 5,6월 핵심적인 조직사상적 과제를 제출합니다.

48일 전투 4대 규율과제

1.회의시간엄수 및 회의를 잘 하자

회의를 잘하는 것만도 사업과 투쟁의 절반을 잘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직생활이라 함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회의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회의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회의시간이 잘 지켜져야 합니다. 그냥 얼굴보면 되겠지 하는 소극적이고 느슨한 생각은 안됩니다. 회의시간을 어길 경우 철저한 비판과 혁신과제를 내웁시다.

(1)회의를 잘하기 위한 방도

1)회의준비를 철저히하자

오늘 회의에 무슨 이야기를 할 것인지 잘 알지 못하고 그저 들어와서 주재자의 고민을 수동적으로 듣게되면 고민도 잘 되지 않고 회의에서의 주동성을 갖게되기 힘듭니다. 회의전에 무슨내용으로 회의할 것인지 회의를 주재하는 사람은 미리 회의에 들어올 성원들에게 공유시키고 회의에 들어올 사람들은 미리 회의에서 논의될 내용에 대하여 깊이있게 고민해웁시다.

고민안해 봤다, 잘모르겠다등의 말이나 알아서 하세요내지는 하는 말들을 회의에서 사라지게 합시다.

-제안서 미리 돌리기

-미리 회의내용 노트에 적거나 문서로 사전에 작성하기

-논의해와야 할 상황 기필코 논의하여 정리하여 올 것

2)결사관철의 자세를 갖자

회의에서 설혹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결정이 났더라도 회의과정에 충분히 자기의 입장과 견해를 피력한후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는 토를 달지 말고 관철해 들어가야 합니다.

3)회의운영에 융통성과 효율성을 가미하고 동지에 대한 배려를 합시다.

여학일꾼의 많은 수가 모여서 회의하는 경우가 그다지 많지 않고 대부분 회의운영의 경험이 적다 보니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중구난방이거나 회의시에 서로 의사소통이 잘 안되고 어떠한 경우 감정이 상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재자는 부단히 회의를 잘 운영하기 위하여 특히 미리 논의의 내용과 고민의 내용을 구체화해주

고 나오는 이야기를 잘 정리하여 주어야 하며 회의성원들은 자신의 발언을 미리 고민해보고 해야 합니다.

회의시에 서로 나서는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잘 해설하고 특히 감정적인 언어의 사용이나 불만에 가득찬 태도로 임해서는 안됩니다. 사소한 의심이나 오해가 쌓여서 반목과 질서를 불러옵니다. 일꾼에게 불만이 있거나 사일상어나서는 고민이 있으면 꼭 회의시간이나 총화시간에 제기하여 의심을 풀도록 합시다.

2. 매일 2시간 이상 학습하자

학습의 중요성은 '알아야 면장을 한다'는 옛 속담에서도 있습니다. 학생운동의 현실은 대단히 복잡하고 미묘하며 여학생운동은 더욱더 많은 과제와 복잡한 모순속에서 우리가 고민을 게을리하면 투쟁을 잘 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 여학생운동의 현실은 이러할까 푸념만 할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의 많은 선배 언니들이 주옥같은 고민을 정리한 문서와 책의 바다에 풍당빠져서 운동의 고민을 풀어봅시다.

일부 일꾼들에게서 나타나는 학습무용론이나 기피론이 있습니다. 그저 틀에 박힌 학습이 아니라 일꾼의 고민을 풀어낼 수 있는 생생한 학습을 진행시켜 봅시다.

(1) 학습의 종류

1) 정세학습

매일아침 내지는 종례시간에 그날 신문을 요약하여 발표한다
통신총화와 검색을 주체를 선정하고 돌아가면서 하자
나오는 문서와 교양자료를 꼼꼼히 잘 챙기자
위에것만 잘해도 학습의 절반은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주1회 집단 학습-목요학습을 진행하자

목요일 내지는 단위별로 적당한 시간을 골라 정기적인 학습을 진행합시다. 학습내용은 여성학에 대한 학습과 토론을 기본으로 하여 학습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3) 개인학습

개인별 준비정도에 맞는 학습계획을 세웁시다. 무리하게 지키지도 못할 정도로 많은 학습계획을 세우기 보다는 지킬 수 있는 것을 중심으로 하여 처음에는 작은것이라도 성취할 수 있도록 진행하여 봅시다.

(2) 학습을 잘하기 위한 방도

1) 학습을 책임질 책임주체를 선정하자

대부분 사업과 투쟁일정에 바쁘다보니 학습일정은 거의 맨 나중에 진행되거나 정리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주체를 선정하고 주체가 학습 준비와 제출에 주동에 나서야 합니다. 조직 교육일꾼이나 없는 경우에는 단위에서 고학번이 학습에 대한 주체를 맡고 진행하여 합니다 지도 사업자와 함께 학습을 진행하는 방도를 현실적으로 풀어갑시다.

2) 학습 계획을 세우고 꼭 점검하자

대부분 학습을 하고자 하는 열의나 필요성은 느끼나 구체화되지 못하고 그저 결의로만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체학습 및 단위별 학습계획, 개인학습계획을 세우고 이것을 학생회실 벽에 부착하여 늘 점검할 수 있도록 합시다.

그리고 지도사업자는 학습에 대한 점검을 꼭 진행할 수 있도록 합시다.

(3) 학습의 내용
이것만은 꼭 하자

여성학 학습
여성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
전단위에 여성학강의와 겪대기를 벗고서3 읽기 운동

정세 학습
반미자료집
조국통일3대헌장 관련 내용

3. 총화 및 계획서를 작성하자

통선대를 갔거나 상경투쟁을 할 때만 총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돌아보고 사색하지 않은 간부는 자신의 현재의 위치와 역할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으며
운동과 삶의 괴리를 경험할 수 밖에 없습니다. 늘 자신을 돌아보고 누가 뭐라하지 않아도 스스로
자신의 일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자기 총화와 계획의 시간을 꼭 갖도록 합시다.

- 총화노트 및 총화서를 꼭 만듭시다.
- 꼭 총화에 대한 내용을 점검합시다.
- 주체총화를 생활화 합시다.(비판생활을 두려워하지 말고 진행합시다)

4. 동지 및 학우들과 담화하는 시간을 갖자

(1) 동지와의 만남을 일상화하자

동지들과 차한잔 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집시다. 하루를 살아가면서 굳이 시간내서 멀리 갈 것이
아니라 다만 30분이라도 자판기 울무차 한잔 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뻔히 험
들어하고 고민있어하는 사람이 보이는데 다음에 술한잔하자는 식으로 하다 보면 1년에 다 되도록
만나서 이야기 할 시간을 갖지 힘들 것 같습니다. 늘 일상적으로 동지들과 담화하는 시간을 갖도
록 합시다.

- 하루에 30분씩 동지들과의 담화
- 일주일에 한번정도 편지 및 엽서쓰기
- 단위별 결의대회

(2) 자기대중을 명확히 하고 만들어가자.

이제 5,6월로 접어들어 가면 3,4월 대중사업과 투쟁속에서 여학생회 두리로 묶여진 학우와 일꾼들
이 몇몇 있을 것입니다. 5,6월은 기간 여학생회 두리로 묶여졌던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총화하고
직접 여학일꾼 한사람 한사람이 자기대중을 확보하고 만들어가야 하는 시기입니다.

한일꾼의 한명의 자기대중을 만들어가는 것만도 여학생회 재생산에 별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자신의 후임자 내지는 여학생회를 꾸릴 한명의 대중을 확보하는 것부터 시작합시다.

- 자기대중을 명확히하고 점검하자
소모임 과여부등의 기층을 중심으로
- 일꾼들 단련사업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자

4. 대중투쟁과제

▷시기 규정에 제출된 것을 바탕으로 단위에서 투쟁의 방도를 다양하게 고민해봅시다. 그리고 다
음에 제출되는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꼭 5,6월 안에 전개해야할 투쟁의 내용입니다.

★핵심 투쟁 방도★

▶ 어떠한 자세로 투쟁에 임할 것인가?

조직역량을 보면 아무 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이지만 주한미군 범죄 사진전을 하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려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전여대협 총회를 정말로 대중적으로 승사시켰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어도 하려고 마음 먹으면 할 수 있고 여성 민중에 대한 열의열정에 넘쳐난다면 못해낼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는 어려운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여성민중을 향해 온몸 바친 여성전사들이기 때문입니다. 80년 5월, 여성민중의 선봉적인 투쟁에서 우리는 5월을 느끼고 시작합니다. 우리는 5월을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여학우 대중과 여성민중을 중심에 두고 주체의 결의를 높여내어 이제 내가 바로 전여대협의 모범으로 우뚝 서고 기층과 대중 속에 들어가 모범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다시 전파하면서 우리는 그야말로 전여대협을 여학우 대중과 2천만 여성민중의 가슴에 आरो새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마음으로 5,6월을 살아야 합니다.

▶ 이것만은 꼭 중심에 잡시다.

"이 땅 만악의 근원 주한미군 철거로 여성민중의 자주성을 실현시키자."

(1) 반미투쟁을 전면화하기 위한 미군 학살만행 전여대협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전민특위는 반미감정을 더욱 고조시키기 위한 위력한 방도입니다. 그러나 더 앞선 것은 반미투쟁입니다. 절대로 전민222특위에 대한 부담감으로 투쟁에 임하여서는 안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벌여왔던 반미투쟁을 더욱 구체적인 내용으로 학우대중과 민중들에게 알려낸다는 마음으로 전민특위 활동에 임합시다.

1) 반미 대중의식화 사업을 전면적으로 펼쳐봅시다.

- 주한미군에 의한 여성민중의 수난의 역사-서여대협에서
- 여성노동자의 삶에 영향을 미친 미국-총청여대협에서
- 여성농민의 삶에 영향을 미친 미국-대경여대협을 대표하여 영남대학교에서
- 제국주의 성문화침탈-남여대협에서
- 통일과 여성, 통일의 걸림돌 미국-서여대협에서
- 성폭력의 흉물 미국농들-부경여대협에서

①전체 단위에2서 이 내용을 함께 토론하며 내용을 준비하고 의식화해 들어가도록 합시다.

②의식화 내용 옆에 표시되어 있는 지역과 대학은 위의 내용을 중심으로 준비해야할 곳입니다. 17일까지 통신총화 해주시기 바랍니다.

③의식화자료를 만드는 과정 또한 특위의 활동으로 생각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학우 대중에 근거하여 학우 대중과 함께 자료를 마련하도록 합시다.

2) 의식화· 조직화 방도

①수금선전전을 위의 내용으로 꼭 진행합시다.

-뽐때있게 합시다. (다른 것은 테내지 않아야 하나 선전에 있어서는 테를 내며 진행해야 합니다.)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대개 알리는 자보, 현수막도 없이 마냥 목소리만 고래고래 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꼭 거점에는 어떤 내용으로 선전전을 하는지 큰 글씨를 써야 합니다.

-총여학생회 일꾼뿐만 아니라 단대 여학생회, 과여학생회가 선전전 준비의 주체가 되게 합시다. 부족하기도 하고 각성 정도가 낮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총여학생회 간부가 직접 들어가 내용

적으로 담보하고 간부 일꾼들의 고민의 수준을 높여 줄시다.

-유인물을 꼭 준비합시다.

-학내 거점을 여러 곳으로 하는 것도 좋습니다.

-항의엽서 쓰기 : 한총련에서 제출하고 있는 항의엽서 쓰기를 여학단위에서 주동적으로 전개합시다. 범죄를 저지른 미군에게 이거나 클린턴에게 항의엽서를 씁시다.

-서명운동 진행 : *이후 제출하겠습니다.

②대중적인 기활 및 기지촌 탐방을 준비합시다.

지금까지의 기활이라 하면 소수 몇몇만이 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기지촌 탐방은 실지로 기지촌 여성을 만나면서 2적점 미군의 잔악성에 대해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우리는 사전의 교양을 통해서 반미의 감정을 높여내고 주한미군이 이 땅에 어떤 곳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며 우리 나라가 식민지임을 느끼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초점을 맞춰 기활과 기지촌 탐방을 대중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방도로 기활학교 및 기지촌 탐방 학교를 강화할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학교의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좋습니다.

· 반미강연회 : 의식화 내용을 가지고 강연회를 하는 경우

미군 범죄 피해지, 피해 주민을 모셔서 강연하는 경우

: 과학생회 반미자료집 활용 바랍니다.

· 반미영화제 : '구멍 뚫린 주권'이나 '은마는 다시 오지 않는다', '아름다운 시절' 등을 상영하며 반미의식을 높여줍니다. 그리고 영화 상영의 방도에 있어서도 보다 더 대중적인 방도를 고민해봅시다.

· 반미토론회 : 자신이 느끼는 주한미군이나 미국에 대한 이야기를 직접 해보도록 합니다.

· 앞서 만들기로 한 의식화자료를 활용합니다.

· 미군 범죄 피해자를 직접 만나서 진상조사하고 알려줍니다.

-실지로 이제 기활을 하고 기지촌 탐방을 해 봅시다.

· 기지촌 활동을 새롭게 고민해봅시다. (시기는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이 될 것입니다.)

*새움터와 더 얘기해본 후 다시 제출 드리겠습니다.

· 기지촌 탐방을 이렇게 합니다.

6월 말을 집중하여 미군기지 주변의 여러 시민모임과 연대하여 기지 주변의 실상 및 그 속에서 나타나는 여성문제를 함께 이야기해봅시다. 사전 교양을 잘 하고 이후 총화를 내실있게 진행합니다. 그리고 실천적인 방도를 준비하여 직접 투쟁을 만들어가도록 합니다. 그래야만 느끼는 바가 더 큽니다.

· 기지 항의방문을 지금까지보다 더 적극적으로 조직합니다.

③여성단체들과 함께 진행합니다.

이 땅 여성민중은 누구 할 것 없이 주한미군에 의한 계속22되는 여성민중의 죽음을 안타까워하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들을 하나로 모아 주한미군 철거의, 반미의 기운을 높여내도록 합니다.

-주한미군의 범죄를 규탄하고 미군 철거의 내용의 성명서를 작성하여 그에 연대 성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성명서 이후 제출

-서명운동을 함께 전개합니다. (앞서 제출한 서명운동)

-연대의 기본은 모두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제출드리지 않습니다. 일상적으로 연대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고민해봅시다. 그리고 시급하게 지역여대협에서는 대학별로 연대단체를 선정해주시기 바랍니다.

④'반미의 날' 투쟁을 더욱 극대화합니다.

3)시기별 흐름

1시기 ~ 5월 18일 : 반미의식화 주력, 학내 의식흐름 형성, 연대 단체와의 활동 벌여내기, 반미

의 식화 자료집 완성.

2시기 ~ 5월 28일 : 전여대협 특위 건설을 위한 각 지역, 대학의 투쟁 총화, 연대 단체와의 연대
성명 및 서명 운동 1차 총화

3시기 ~ 6월 10일 : 남북청년학생회담 준비, 의조작화 활동 계속 진행

4시기 ~ 6월 25일 : 대중적인 기활, 기지촌 탐방, 기지

→ 이 모든 것이 전여대협 특위의 활동입니다.

"학내에서 무수히 발생하는 성폭력을 근절하고

이 땅에서 성에 의한 인간 차별을 없애고 여성해방 세상으로 나아가자."

(2)성폭력 규제 학칙 제개정 전여대협 공동대책위 활동

5,6월은 학내에서 성폭력의 실태를 조사하고 그 실태를 인식하고 다 함께 성폭력 학칙을 제정하는 공분을 모아내는 시기입니다. 전여대협 출범식에서 공동대책위를 발족해서 그러한 공분을 더 높여내도록 합시다. 그리고 올바른 성폭력 규제 학칙의 안을 공통으로 만들어내고 공통으로 제출합시다. 그리고 나서 2차의 투쟁을 준비해 들어갑시다. 그와 더불어 성문화의 개선 투쟁과 성교육, 성강연회를 함께 진행하여 올바른 성문화를 논의하고 함께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고민도 함께 진행합시다. 성폭력은 단지 학내에서만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고 사회전반에 걸친 문제이기 때문에 전체 민중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기자회견, 교육부에 학칙안을 제출하는 투쟁으로 이 투쟁을 여론화해봅시다. 또한 이 투쟁을 특위의 사업과 함께 연결하여 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고민해봅시다.

1)의식흐름 형성

①사회에 만연된 성폭력의 문제들과 그 원인에 대한 선전

②성폭력 실태 조사 : 설문이나 신고 제도 마련-"심각성을 알려냅시다."

신고제도로는 성폭력 신고 전화나 배배, 상담실, 홈페이지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도 잘 알리는 것이 우선이겠습니다. 스티커나 화장실 선전물을 통해 꼼꼼히 알려냅시다.

*성폭력 실태 조사 설문안을 참고로 올려놓겠습니다.

③성폭력 반대와 학칙 제정을 위한 서명운동을 진행합시다.

*서명용지는 곧 제출하겠습니다.

덧붙여 창원대 성추행 교수 송민호 퇴진 운동을 함께 벌입시다. 창원대로 지지 성명과 현수막 등을 보낼 수 있도록 합시다.

2)여성단체와 함께 합시다.

①성폭력 학칙 제개정과 성폭력 반대를 위한 성명서 공동 발표

②성폭력 학칙

③함께 기자회견을 진행합시다.

지역여대협별로 사전에 진행하고 전여대협 차원에서 기자회견은 5월 27일(가)

④전여대협 출범식에서 공동대책위 발족을 하게 되는데 초청연대사업을 진행합시다.

3)공통안을 마련합시다.

①실태 조사한 것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학칙안을 만듭시다.

②학칙안 마련을 위한 전국적인 토론회를 통신 공간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신공간은 곧 총화 드리겠습니다.

③지역여대협별 공동대책위를 꾸리고 주체모임을 통해서 논의해봅시다.

④여성단체, 법률 상의 자문 등을 구합시다.

4) 성폭력 학칙 제개정 공대위 건설 준비 과정은 이렇게 합니다.

- ① 먼저 지역여대협별로 학칙 제개정 공대위 모임을 진행합니다.
공분을 모아냅니다. 의식 흐름을 형성할 것을 함께 결의합니다.
- ② 통신공간에서 전체 투쟁의 방향을 논의합니다.
- ③ 전여대협 출범식 자리에서 전체 모임을 가지고 투쟁 방향을 합의하고 힘있게 발족을 합니다.
전체 모임은 5월 26일 늦은 시간에

5) 성폭력 학칙 제개정을 위한 실천단을 조직합니다.

위에 제출된 투쟁들을 다양하고 학우들과 밀접하게 풀여낼 실천단을 조직하면 되겠습니다.

6) 성교육, 성에 대한 강연회 등을 함께 진행합니다.

- ① 여성에 대한 차별이 있다라는 것은 여성에게만 차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누구나 차별과 모순을 안고 살아간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여성해방이 있을 때만이 인간해방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공통성을 확인하고 인간평등, 존중의 관점으로 강연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봅시다.
- ② 시기는 멀리 보아도 좋습니다.

7) 부산대학교 성폭력 학칙제정의 과정을 예로 들어 보입니다.

96년부터 성폭력 규제 학칙 제정의 요구를 했습니다.

성폭력의 자료를 수집하고 학내 의식흐름을 형성해갔습니다.

총장 간담회를 진행하고 법대학우와 총여학생회 간부가 학칙 가안을 만들고 이를 학교 측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대학본부에서 대학본부가 임의로 만든 학칙의 내용으로 제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논의하고 처리하는 성윤리위원회가 학칙 상에 존재하는데 그 구성(교수 6인 학생 3인)의 문제와 구성원의 자격기준이 아무 것도 없다는 것, 피해자 보호 조항이 없다는 것 등 문제가 되었습니다.

또 그 문제에 징계를 내리는 징계위원회와 성윤리위원회가 따로 있어 성윤리위원회가 전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또한 성상담실이 학교에 설치되어 있긴 하나 전문 성상담원(채용의 기준이 없다고 함)이 아니어서 피해 학우에게 더 상처를 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부산대는 성폭력 학칙 개정이 시급히 요구된다 하겠습니까. 그 투쟁을 올해 전여대협 차원의 공동대책위를 발족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투쟁하여 돌파할 것을 결의하고 있습니다.

8) 시기별 흐름

- 1시기 : 5월 8~5월 21일 : 의식 흐름 형성, 지역여대협별 공동대책위 모임, 여성단체와 연대 투쟁, 대동제 기간 성강연회, 서명운동
- 2시기 : 5월 22~5월 26일 : 전여대협 공동대책위 건설 준비, 전국 토론회, 전체 모임
- 3시기 : 5월 27일 : 기자회견 및 전여대협 공동대책위 발족
- 4시기 : 5월 28 ~ 6월 10일 : 공통의 학칙안 마련, 대학당국과 교육부에 제출
- 5시기 : 6월 10일 ~ : 학내 의식 흐름 계속적으로 형성, 전체적인 투쟁으로 만들어감.

9) 핵심사업

- ① 지역여대협 공동대책위 모임
- ② 전여대협 차원의 통신공간 토론회 : 투쟁 방향에 대해, 학칙안에 대해
- ③ 전여대협 2공동대책위 전체 모임
- ④ 전여대협 공동대책위 기자회견

"특위 및 공대위 활동을 발야구대회로 결의 높이고 통일조국으로 달려가자."

(3)특위 활동 결의 및 성폭력 규제 학칙 제적을 이한 전국 대학 여학우 발야구대회

전여대협 차원의 특위 및 성폭력 규제 학칙 제개정 공대위의 투쟁을 담아 조국통일을 염원하는 마음으로 여학우들의 체육경기를 제안합니다. 해마다 총장배 축구대회다 뭐다 해서 남학우들이 직접 학생회 사업에 참여하고 뛰어 놀 수 있는 계기는 많으나 여학우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각 대학에서 총장배 수준의 발야구대회를 준비하고 지역여대협별로 우승학교를 견주어 전국적으로 발야구대회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8이를 통해 전국 대학의 여학우들이 통일단결하여 자기 삶의 주인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하며 이8복과의 발2야구대회를 제안하겠습니다.

전여대협 출범식을 마치고 5월 말 6월 초 기간에 진행할 수 있도록 합시다.

<발야구 대회 의의 목표>

- 여학우들이 직접 참여하여 만들어가고 특위 및 공대위 활동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 특위 활동과 공대위 활동을 이것을 기점으로 더욱 증폭시킬 수 있다.
- 특위 및 공대위 활동을 학우들과 함께 중간 총화하는 자리로 만든다..
- 여학우들의 소극성을 깨고 자기 삶의 주체로 서나갈 수 있도록 체육경기를 통해 만들어낸다.
- 통일조국 건설에 주체가 되며 이북 여대생들을 직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계기를 만든다.

1) 의식화

①발야구대회가 가지는 의의와 목표에 대해 알려냅니다. 특위 활동과 공대위 활동을 적극화하는 것이 그에 대한 방도입니다.

②포스터 선전

2) 조직화

①대중적인 참가단 신청을 받습니다.

②대의체계 속에서 모집합니다.

③직접 단대, 과로 들어가 조직할 수 있도록 합시다.

3) 시기별 흐름

1시기 ~ 5월 18일 : 발야구 대회 포스터 제작, 대학으로 분공

2시기 ~ 5월 25일 : 특위 및 공대위 의식화(이게 곧 발야구대회 개최 의의), 참가신청서 배부·신청2받기, 발야구대회 규칙 공포

3시기 5월 29일 : 참가조장 모임

4시기 5월 31일~6월 2일 : 발야구 대회 경기 진행

5시기 ~ : 이후 지역 및 범청학련 발야구대회 진행하도록 제안

4) 발야구 대회 후속 작업

①기지촌 활동과 2기지촌 탐방 때 함께 조직

②지역 통일축전 및 범청학련 통일축전으로 조직

③통일 투쟁의 주체로 조직

5. 일정표

일	8월	화	수	목	금	토	덧붙여
5/7	8	9	10	11 금속연맹투쟁	12	13	
14 광주순례	15	16	17	18 광주인중항쟁 20주년 총궐기	19	20	각 학교별 대동계 지역여대협 공대위모임,출범식
	총투표					미대사관	
21	22 반미의날	23	24	25	26	27	전여대협특위 발족 공대위발족
전격투쟁	반미통일대동계				전여대협·한총련		
28	29 발야구대회 참가단장모임	30 노동자대투쟁	31	6/1	2	3	대학별 발야구대회
출범식				발야구대회			
4	5	6	7	8	9	10 민중대회 남북청년학생 회담	
	2						
11	12	13	14	15	16	17	각 학교 기말고사
	남북최고위급회담						
18	19	20	21	22	23	24	기지촌담방 기지촌활동
25 6.25 50년	26	27	28	29	30	7/1	여름농활